

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 말씀

- 바쁘신 가운데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.
-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제가 장관으로 취임할 때부터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내겠다고 다짐한 것이 바로 '청년일자리 문제해결'입니다.
- 청년들이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단 한명이라도 더 많은 청년에게 '취업' 성공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정부와 기성세대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.
- 그런 마음으로 지난 반 년동안 참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.
- 문과생 등 모든 청년에게 열려있는 최고 수준의 IT직무훈련인 K-Digital 트레이닝, 취업촉진수당부터 일경험, 취업역량강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,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각종 청년고용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.

- 그러나, 제 기억에는
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팍팍해진 취업상황에서
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준생들의
고민과 애로가 더 깊이 남았습니다.
- 제가 고용노동부에 30년 몸 담아 왔지만,
오늘을 사는 취업준비생의 고민은
지난 30년과는 다른 새로운 고민인 것 같습니다.
- 과거에는 “얼마나 많은” 일자리가 있는가가 주된 문제였다면,
지금은 “어떻게”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라는 문제가
추가되었습니다.
- 과거의 공채 시스템이 아닌 수시·경력직 중심 채용,
화상·AI면접이 새로운 채용트렌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.
-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
어두운 방 안에서 취업의 스위치를 찾는 것처럼
막막함과 불안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.
- 이에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담지 못한,
“지금 이 순간의 취준생”에게 필요한 정부의 고민을 담아
오늘 이 「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우선, 최신 채용 경향 변화에 부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
화상·AI면접 무료 서비스 등을 신설하고,

「자기소개서-필기-면접」 전반에 걸쳐
양질의 공공 취업 콘텐츠를 지원하는 한편,
「청년채용기업 인식조사」 등 정확하고 실감나는 취업 정보 제공,
취업준비로 지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심리상담 확대 등을
추진할 계획입니다.

□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.

- 날마다 새로워지는 채용의 경향과
제가 앞으로도 만날 청년 구직자들의 애환을 반영해서
부족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
그 빈칸을 계속 채워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.
- 오늘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을 통해
취업준비중인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
있도록 지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